



광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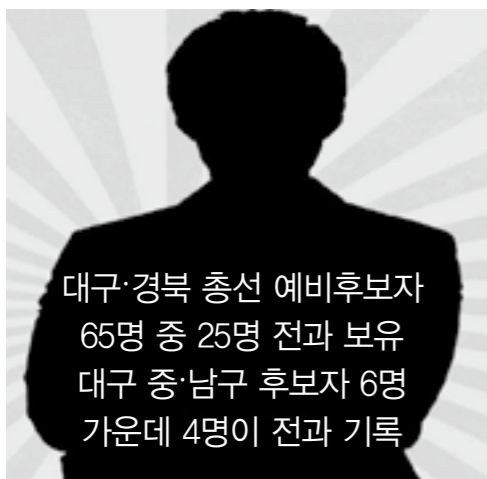
KB 국민은행 대구국가산업단지지점 개점 달성2차산업단지 입구 웰빙온천 1층 상담전화 : ☎ 053-617-3371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3135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www.dgy.co.kr 대구 경북 오늘 날씨 대구 4~8℃ 경북 3~9℃ 단기 4348년(음력 11월 13일)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 축하하는 박 대통령 이낙연(왼쪽부터)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조동인 영남 주민대표, 박근혜 대통령, 배모니카 호남 주민대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송헌지 전북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20대 총선 예비후보 전과자 수두룩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11시 현재 대구·경북지역 65명의 예비후보자 중 25명이 각종 전과 기록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33명 중 14명의 후보자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지역은 32명 중 11명의 후보자가 전과 기록이 있었다.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은 다양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은 물론 부정수표 단속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도 있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예비후보자는 모두 8명이며 그중에서도 2명은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대구 중·남구의 경우 후보자 6명 가운데 4명이 전과기록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이모 후보는 6건(음주 2건 포함), 김모 후보는 4건을 보유하고

있고, 북구율의 조모 후보와 서구의 손모 후보는 각각 5건과 3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포항 북구에도 3명의 예비후보자 중 2명이 전과 기록이 있고, 김천의 송모 예비후보자와 영양·영덕·봉화·울진의 홍모 예비후보자는 각각 3건, 경산·청도의 안모 예비후보자는 2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이처럼 예비후보자의 전과 특적인 경우 최대 6건에 이르고 있고 공직 생활 중 음주운전 적발 등 도덕성이 우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회의원 후보 자질론이 증폭되고 있다. 2013년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과 기록의 경우 지나칠 정도의 엄격한 공천 잣대를 들이댔던 전력이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자유현 기자

경북공동모금회, 사랑의온도 낮아 '울상'

도내 기업 등 나눔참여 저조 경기불황 장기화 등 원인

경북도민들의 이웃사랑 정도를 나타내는 경북 사랑의 온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도내 기업들과 독지가들의 '나눔기갑'이 쯤쳐림 열리지 않으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연말 나눔분위기 침체와 기업기부·개인 고액기부 참여 저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희망2016나눔캠페인' 모금액은 39억3300여만원(22일 기준)으로, 전국 사랑의 온도 46도(1621억원·22일 기준)보다 훨씬 낮은 31도를 기록하고 있다. '희망2016나눔캠페인' 모금액을 개인·기업기부별로 살펴본 결과, 개인기부금이 29억3000여만원(74%), 기업기부금이 10억3000여만원(26%)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개인기부보다는 기업기부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에 반해 경북은 기업들의 불우이웃돕기와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전반적으로 낮아 개인기부자들의 풀뿌리 기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연말 고액기부문화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 캠페인 기간 동안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에 신규 가입한 회원 수가 단 4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캠페인에서 도내 숨은 독지가 9명이 잇달아 가입한 것과도 비교되며, 김천·영주·상주 등 12개 시·군에서는 아직 단 1명의 신규회원으로 탄생하지 않은 실정이다. 신현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연말



이 지나고 새해 연초가 되면 나눔분위가 급격히 가라앉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연말까지 70도 이상을 채워야 계획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 기업들의 통 큰 나눔과 숨은 독지가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 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복지비용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 및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북공동모금회는 '희망2016나눔캠페인'의 모금목표액을 지난해 모금목표액(114억6100만원)보다 9% 늘린 124억9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도내 복지 수요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해동안 도내 소외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재원이다. 김양수 기자

朴대통령 "광주-대구 고속도, 영호남 화합 기대"

광주-대구 1시간40분대 줄고 물류비 절감액만 매년 760억...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과 관련해 "광주-대구 고속도로는 단순한 자동차 길을 넘어 영호남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함양 산삼골 휴게소에서 개최된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식에서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계기로 지역의 자발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지역 화합의 커다란 기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 개통은 협조한 소백산맥으로 가로막혀 있는 남부 내륙지역에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을 촉진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2시간10분이 넘게 걸리던 광주와 대구 사이가 1시간40분대로 줄어들고 물류비 절감액만 매년 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통산업과 고요문화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며 "지리산과 가야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광지과 지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되고 지역 특산물 유통과 지역 문화행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확장 개통으로 교통안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며 "그동안 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노선에 굴곡이 많아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손꼽혔지만 이제 안개와 비탈면 경보시스템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갖춘 최선의 안전도로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확장 공사 과정에서 1만8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했으며 공사 완료로 광주에서 대구까지 통행시간이 30분 단축돼 연간 76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2차로 고속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없고 노선에 굴곡이 많아 올해에만 10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도로 확장과 안개 경보시설, 터널 사고시 차로통제시스템, 비탈면 경보시스템 등이 설치돼 교통사고가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식 기자

'광대' 아닌 '달빛'고속도로로 바꿔야 대구·경실련, 행정편의주의의 개탄

대구·경주경실련은 옛 88고속도로의 새 이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불통과 행정편의주의의 개탄한다"며 "광대고속도로가 아닌 '달빛고속도로'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주경실련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영·호남지역의 숙원 중 하나였던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돼 광주-대구 고속도로, 약칭 '광대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개통됐다"며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지역 경실련은 "하지만 광대고속도로라는 어감의 문제점 해소와 동시간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의미로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을 해야 한다는 광주와 대구지역의 여론이 철저히 무시돼 고속도로의 개통이 마냥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적인 문제와 일부 지자체가 달빛 고속도로라는 명칭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국토부가 '광주-대구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핑계에 불과할 뿐 달빛고속도로라는 이름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안동시장 불법 선거자금 의혹

검찰, 안동시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권역세 안동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과 관련, 22일 안동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시장실과 비서실, 국장실 3곳을 압수 수색하고 주민복지과, 회계과, 상하수도과, 기획예산실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용규 기자



검찰은 최근 안동지역의 한 복지재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의 선거자금과 관련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규 기자



새해 첫 해 7시 26분 독도서 떠오른다

2016년 떠오르는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26분 18초,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원장 한인우)은 22일 주요 지역의 올해 마지막 해넘이 시각과 새해 해돋이 시각을 발표했다.



광역일보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2

與公천특위, 첫 탐색전...안건 4가지로 압축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수도권 협치출론, 진박(진실한 친박계)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공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10분 가량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무성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뒤에서 논의할 안건 등을 정했다.

특위는 향후 회의에서 △후보자 경선방식

△우선추천지역과 단수추천지역 △후보자 자격 심사 기준 △여성 및 장애인 등 소수자 배려 등 4가지 안건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건을 두고 계파간 이견이 큰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친박계와 비박계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우선추천지역의 경우 친박계는 TK(대구·경북) 지역이나 서울 강남 등 여권 우세지역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박계는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수도권 협치출론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수추천제도 논의는 또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단수추천이란 경선 후보자 중 한 사람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을 경우 해당 지역은 경선 없이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수추천제는 김무성 대표가 절대 불가 방침을 세운 전략공천의 또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스



김정훈-이목희 與野정책위의장 쟁점법안 기사음 '팽팽'

윤의장이 논의장 집무실 찾아 인사, 대화하며 날선 신경전
李 “여당 9개 요구하니 야당도 9개 올릴 것”... 金 ‘난색’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2일 여야 쟁점법안 협상을 놓고 팽팽한 기사음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9개만인 야당 역시 같은 수의 법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리겠다고 공언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야당이 합의 가능하다고 밝힌 법안들부터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이목희 정책위의장의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상견례를 겸해 진행된 회동에서 미소 띤 얼굴과는 달리 날선 대화를 주고 받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차나 한 잔 하고 가려고 왔다”며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5+5(정책위의장·법사위·기재위·정무위·산자위 간사) 회동 제의를 했는데, 그건 여야의 조원진-



이준석 원내수석이 해왔고, 의견저근도 많이 돼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갑자기 정책위의장하고 상임위 간사들 하고 하자고 하니... 기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처리할 것을 빨리빨리 하려면 협상 파트너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원내수석 끼리 많이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새누리당이 너무 욕심을 냈다”며 “무거운 법안 9개를 쏟아놓고 빨리하자고 하니 되겠냐.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한데”라고 맞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하나부터 착작 풀어

가야 한다”며 “그런데 야당에서는 산자위를 열어놓으면 일반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라고 맞받았고,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이든 다 심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심사만 하면 안 된다. 합의하고 결론을 내줘야지”라고 각을 세웠고, 이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원내수석 부대표가 됐든, 우리끼리 협상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의 당직이란 것이 고유 업무가 있고, 원내수석, 원내대표가 할 일을 정책위의장이 빼앗으면 안 된다”고 재차 반박했고, 이 정책위의장은 “이게 무슨 빼앗는 것이야. 정책위의장이 힘이 없으면”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나는 힘이 없다. 그러나 원내수석이 해야 한다”며 “처음이니 분위기 좋게 인사하려고 했는데”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들은 곧바로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도 아무런 협의를 찾지 못했다.

양측에 따르면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안이 9

개이니 야당도 협상 테이블에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9개의 법안을 올리겠다”며 “여당이 이에 합의해줘야 야당이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못박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기업활력법, 북한인권법 등을 당장 논의할 수 있다고 했으니, 23일부터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맞섰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그러면 내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말해 원유철 원내대표와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맞받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0분 가량 진행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노동5법은 노동법이지, 이것을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하나하나 따져 똑같이 올리자는 거예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을 만나 “각자가 지켜야 할 것을 확실히 지키면 이야기가 잘 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자신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욕심을 지나치게 부린다면, 청와대 신호에 따라 너무 오버한다면 그러면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야당에 경고를 보냈다.

뉴스스

朴대통령 “정치권 이득보다 국민 경제·안전 중요”

청와대서 영상국무회의의 주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회에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국민들과, 특히 정치권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살리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때 이어 최근에는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경제활성화와 노

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고, 한편으로는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함을 지금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수침체와 저출산 등의 원인을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진단하면서 “노동 5법이 통과돼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향후 5년 동안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 활성화와 저출산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애라는 심정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또한 참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재차 중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강석호 의원, 23일부터 2015년도 의정보고회 개시

영덕읍을 시작으로 지역구 4개
군서 내년 1월13일까지 20일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사천)이 23일 영덕군 영덕읍을 시작으로 지역구 4개 군을 다니며 2015년도 의정보고회에 본격 나선다.

의정보고회는 공직선거법 상 내년 1월13일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의정보고회는 앞으로 20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영덕읍사무소에서 읍민들을 상대로 내년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입법 실적, 민원처리 결과 등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오후 2시에는 지품면사무소로 이동해 지품면 달산면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24일에는 오전 11시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의정보고회를 갖기로 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영덕군 강구면사무소, 오후 4시에는 축산면사무소에서 각각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오는 28일 오전 11시에는 영덕군 영해면사무소에서 보고회를 가진 뒤 29일부터는 영양군 일원에서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울진군과 봉화군은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 때문에 국회 상황을 바라며 보고회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의정보고회는 저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 설명 드릴 수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이나 부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정 의장 “하느님·부처님에게 기도하고 싶은 심정”

정 의장,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 재천명, 의장 중재 협상도 野 불참으로 파행 거듭



정의와 국회의장은 22일 새누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그것은 불가능하다”며 재차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제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권상정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여야 합의를 위해) 하늘을 보고 부처님을 보고 조상님을 보고 기도를 드

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서 접점을 찾아가자,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예정됐던 의장 주제 여야 협상에 야당이 불참하면서 국회 대치상황은 여전히 계속됐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일괄 협상 중재를 시도했다. 중재 협상에는 기재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위, 환노위, 정보위 등 5개 쟁점법안 관련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들도 참석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협상 시작 전 정의와 국회의장을 따로 찾아가 협상 참여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신 국회의장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원내대표의 중재 협상 불가 방침에 따라 쟁점법안 5개 상임위 야당 간사들도 일제히 이날 협상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의장 중재 협상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석훈·권성동·심윤준·이철우·이진복 의원 등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만 연석회의에 참석, 정 의장에게 쟁점법안 통과 의뢰 위임을 1시간여 가량 일방적으로 설명한 뒤 회의를 마쳤다.

뉴스스

천정배 의원 “총선 승리 위해 야당 연대해야”

“안철수 신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

‘국민회의’(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2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연대해야 하고 그 연대는 최소한의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야권 연대는 가치와 비전, 반복권, 승리와 희망이라는 3대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정치는 소통이 중요하고 적대적 정파와도 소통해야 한다”며 “연대 원칙이 같으면 안철수 의원 신당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아직까지 안 의원과 (연대)의견을 나누는 것은 없고 일단 국민회의 창당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생각이다”고 창당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의원들이 안 의원에게 가는 등 호남 민심의 무게중심이 안 의원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큰 틀로 보면 신당세력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기사 야당을 어떻게 교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절대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정한 세력 교체를 위해서는 총선부터 승리해서 대선이 지 이겨야 한다”며 야권 지형 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했다.

뉴스스

20대 총선출마

대구 정치인 시민에게 진심 보여주는 정치인 돼야

김휘일, 대구 중·남구 출마선언



제18대 대선 박근혜대통령 후보 유세지원본부 부단장을 지낸 김휘일(55) 예비후보가 22일 오후 2시 중구 국제보상운동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중·남구 총선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제 대구 정치인들은 대구 시민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대구시는 정치인부터 변해야 한다. 그 변화를 위한 선봉에 김휘일이 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이 한 몸을 기꺼이 불살라야 할 대구에서 ‘새정치’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이 길이 박근혜 정부를 위한 정치혁신의 길이요 대구시민을 위한 창조적 길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믿음과 신뢰, 원칙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정치인생을 마음껏 펼쳐 대구시민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공고와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새누리당 국가혁신포럼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지우현 기자



광역일보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3

경북도, 올해 한국관광의 별 전국 최다 수상

경북도는 2015 한국관광의 별 전체 11개 부문 중 전국 최다인 4개 부문이 최종 선정됐고 22일 밝혔다.

도는 생태 관광자원 부문(문경새재 도립공원),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경주 보문관광단지), 숙박 부문(영주 무섬마을 전통한옥), 음식 부문(영덕 대게거리)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2015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도내

관광지 중 문경새재 도립공원은 과거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가는 길에 넘어진 고개였으나 트레킹을 즐기며 자연을 만끽하고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됐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경주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살려 고대와 현대가 잘 조화된 관광지로서 보문호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영주 무섬마을 전통한옥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무섬 외나무 다리를 중심으로 매년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행사와 함께 뮤직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영덕 대게거리는 영덕군 강구항 일원에 조성돼 있으며, 대게 경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과 대게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있다.

전화식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과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개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관광홍



보시스템 확충에 집중해 내년을 경북관광 재도약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은 조선산업 핵심산업의 중심축



포항-구미-경산-영천 연결 첨단소재산업벨트 집중육성

경북도에 탄타늄(탄소+타이타늄) 산업시대가 열린다.

지난 16일 지역전략산업으로 첨단 타이타늄 소재산업이 선정된 것이다.

도는 22일 포스텍(학계), KPCM(기업), RIST(연구원)와 포항, 구미, 경산, 영천 등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타이타늄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의 역할이 총 결집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에타(에비타당성조사) 중인 탄소산업과의 연계로 이른바 '탄타늄시대(탄소+타이타늄)'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타이타늄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 타이타늄 산업육성 최우선

포항, 경산 등이 포스코(소재), KPCM(용해, 주조), RIST(연구원), 포스텍(대학) 등이 집적돼 타이타늄 산업육성의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인공 생산공장을 준공(카자흐스탄), 안정적인 소재 공급처를 확보, 냉연코일 제품을 상업 생산하는 등 본격 사업화에 나선다.

내년 3월까지 타이타늄산업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 산학연관 및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 타이타늄발전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공개토론회를 연다.

산업 육성에 따른 △전문단지 조성(10만평) △원천소재기술개발센터 △시험인증센터 △타이타늄산업연구원 등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과 기업설립을 제약하는 환경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의 양성과 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에 건의한다.

사업이 가시화 되면 포항의 타이타늄 소재를 중심으로 영천, 구미, 경산의 항공, 국방, 자동차 부품 등 수요산업을 연결하는 타이타늄

첨단소재산업클러스터가 건설된다.

울산·경남·대구의 친환경 자동차, 항공, 국방, 조선산업의 핵심부품 공급처로 경북이 관련 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소재·부품 생산액 39조원

전국 타이타늄 관련 기업이 경북내 클러스터로 집적되면 소재·부품 생산액 39조원, 수출 135억불, 관련 일자리 5만5000명(2025년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과 전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 예타사업의 재정지원 방안도 일정대로 추진돼 탄소와 타이타늄이라는 양대 소재를 축으로 한 첨단소재산업벨트 육성에 탄력을 받는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타이타늄의 지역전략산업 선정으로 예타 중인 탄소와 더불어 첨단소재산업벨트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향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주력산업과 미래성장산업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항공, 국방, 자동차 핵심소재

타이타늄은 고강도(강철의 2.5배) 이면서 경량화 특성으로 항공, 국방, 자동차의 핵심소재이며, 바닷물에서도 3년간 부식되지 않을 만큼 고내식성으로 선박, 잠수함, 해양플랜트 등에 필수적이다.

인체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 의료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이며, 자동차, 가전 등의 백색안료와 화장품 등의 첨가제로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기반소재이다.

타이타늄 세계시장은 소재시장이 2012년 약 28조원 규모이며, 최종 제품시장은 세계시장이 2012년 250조원에서 2025년 600조원 규모까지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항공 산업은 전체의 36%를 타이타늄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천억불의 세계시장이 예측된다. 타이타늄이 인체의 '갈비뼈'에 해당한다면 탄소는 '살'에 해당하고, 항공기 1대당 금액기준으로 타이타늄은

28%, 탄소는 18%를 차지한다.

■ 임플란트 매년 9% 가량 지속 성장

의료산업의 경우 인공관절은 2013년 722억불(2025년 3176억불) 시장이고, 임플란트는 매년 9% 가량 지속 성장하고 있다.

그밖에 국방산업은 탱크, 잠수함 등의 경량화 및 방탄재료로, 세라믹산업은 가전, 자동차의 백색안료(2012년 24조원) 등으로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 각국의 동향을 보면, 타이타늄의 중요성을 감안, 핵심기술개발, 주력산업과의 융합 등 관련 산업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복합산업으로 저원가 대량생산의 항공기·자동차 부품 개발, 러시아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타이타늄 벨트' 조성, 일본은 발전, 플랜트, 자동차 등 제조업과 연계 강화, 중국은 전략적 신수산업 5개년 계획(2011-2015)으로 항공·우주 중심의 세계적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세계 5대 타이타늄 강국' 도약 목표

타이타늄은 4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다. 하지만 소수 국가만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점소재로 개발된 지 60여년이 지났으나 신규 시장진출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

2012년 수입단가가 533%나 폭증, 구입을 하지 못할 만큼 해의 중속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13대 산업엔진, 타이타늄 육성전략(2015년1월20일) 등을 통해 타이타늄 핵심소재 및 부품 개발을 추진, 202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6.5%(39조원)를 달성해 '세계 5대 타이타늄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원천소재 생산비용을 50%이상 줄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대기업은 소재개발, 중소기업은 부품제조를 담당, 양산화하고 중간재 제조비용을 15-40%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에 저렴하게 공급, 미래산업인 항공, 의료용 3D프린팅을 위한 고속 초정밀 분말 제조기술도 개발한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공간 넘쳐 풍년가 절로 나온다

경북도, 행자부 주관 살림살이 3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영예

경북도의 공간이 넘쳐난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 재정운영 우수기관으로 뽑힌 것이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점검·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해 오고 있다.

2015년 재정분석평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 3개 분야 24개 지표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진행됐다.

평가에서 경북도는 탄실한 재무 규모와 중장기적 재무 관리·운영으로 재정건전성 분야

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자체세입비율(증감률) 등 재정효율성 분야 지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경상경비 절감,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도입,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비율 축소, 지방세 징수를 제고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계획적이고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크게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3년 연속 지방재정 분석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쾌거는 내년도 국비예산 12조원 확보와 더불어 재정운용 측면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앞으로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반영과 재정의 낭비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간다"고 덧붙였다.

2015년도 재정분석결과 광역도에서는 경북·경남도가 특·광역시에서는 대전·울산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통합마케팅사업 성과 빛났다

올해 과수 통합마케팅 2338억원 달성



경북도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농산물 통합마케팅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1월 기준 과수 통합마케팅 취급액이 2338억원을 돌파, 전년 1324억원 대비 77% 증가했다.

취급물량도 6만8000 톤에서 9만2000톤, 사업참여 조직수 40개에서 52개,

사업참여 비율 13%에서 27%로전 분야에 걸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통합마케팅 사업영역을 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흡소점, 학교급식, 해외수출 등으로 다변화해 출하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물량을 분산·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올 추석이후 출하된 조·중생종 사과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공동 마케팅을 펼쳐 과잉된 물량을 조기에 소진했다.

가을철에 생산되는 만생종사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지지 효과를 견인할 수 있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하고, 통합마케팅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도 단위 통합상표 'daily'를 출시, 본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하지만 경북과수 통합상표 daily는 도내 800여개가 넘는 농산물 상표가 난립, 지나친 경쟁으로 과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도는 시군과 함께 마케팅 창구를 일원화,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FT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표로서,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 클럽에서 론칭행사를 시작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와 대형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평가회에는 농산물 산지유통 관련 공무원, 농업인, 농협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평가회에서 올해 통합마케팅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와 문제점을 진단, 내년도 정부 산지유통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통합마케팅 사업의 확대 방안에머리를 맞췄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마케팅사업은 농산물 주산지 시군간 과도한 경쟁해소와 물량 규모화를 통해 대량수요처에 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경영체 중심의 시군마케팅조직을 도 단위 경북연합 중심으로 마케팅창구를 단일화 하는 사업이다. 윤용찬 기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직은 아이를 가슴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문만 바라보는 머뭇이 생겼습니다
 금방이라도 '엄마' 하며 아이가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낮이 나간 채 몇 번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를 잃는다는 건 모두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종아동 관련정보 및 제보는 국번없이 18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실종아동전문기관 (www.missingchild.or.kr)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www.sale182.go.kr)에서 정보연락 및 제보 가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회

광역시도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4

보이스피싱... 수천만원 가로채려 한 중국인 검거

80대 노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경북경찰서는 80대 노인을 상대로 보

이스피싱을 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중국인 A(35)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15

분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해 김모(80)씨에게서 현금 9000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공범(중국거주)은 이날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누군가 당신의 카드를 이용해 돈을 다 빼내려고 한다"고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범은 김씨에 또다시 전화를 건 뒤 경

찰청 사이버수사대로고 소개하며 "현금 9000만원을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면 형사를 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씨는 돈을 인출 후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청에 신고를 했다. 김씨의 집을 찾아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지우현 기자

“성범죄 공무원,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퇴출”



공무원 자기개발 강화 차원... 심사 거쳐 1년 이내 무급 휴직

앞으로 성폭력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더욱 엄격해지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 회피용 퇴직이 어려워진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간 무보수로 자기개발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 인제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될 때까지 관련 직무

를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공무원행위규정령을 기했다.
42년만에 공무원인제개발법으로 바뀌어... 자기개발 학습 의무화
1973년 제정된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인제개발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 법에는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자기개발 학습의무를 규정했다.
각 부처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 간 활발한 협업으로 교육과정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유와 소수의 장인 교육기관 협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도 내년부터 국가공무

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기본교육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공공·민간교육과의 교류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비위공무원 '몰래 퇴직' 차단 강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직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퇴출과 임용 결정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퇴출 요건은 기존의 '형량'에서 배임과 성폭력 범죄 관련 벌금형 등이 추가됐다.
비위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수 있게 했다. 검토 결과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금(수당) 50%를 감액하도록 했으며, 금품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5%를 감액할 수 있다.
비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휴직제를 신설했다. 일정기간 이상 근속했다는 전제 하에 정채연구와 자기개발 등을 위해 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년 이내 기간을 무보수로 쓸 수 있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도 기존 '5인 내지 7인'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확대해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분야별 대표성을 고

려했다.
백지신탁 주식 매각안되면 관련업무 불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재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들이 포함됐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신설됐다.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 공무원행위규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자다.
대상자들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될 때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련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의취급 뒤 부당한 취업을 적발하기 위한 수단도 강화됐다. 취업사실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됐다.
이밖에 법령에 따라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수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의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만 기자



환경영향평가 안받은 전원주택 못짓는다

앞으로는 토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전원주택 등을 짓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중전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보전지역에서 전원주택이나 공장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분할이나 명의를 도용해 약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재설, 마리아항만시설 건설 등 환경영향이 큰 4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대상에 추가했다.
환경영향이 작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장기임대주택) 사업 계획과 전국 입도(林道) 설치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김영식 기자

31년간 전국 유일 2차선 고속도로 역사속으로...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주행시간 30분 단축'
영호남 교류협력 확대
전국에서 유일한 2차로 고속도로였던 88을

림픽고속도로가 2008년 이후 7년만에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새롭게 탄생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호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광주-대구고속도로(88을 립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이 이날 경남 함양군 산삼골 휴게소에서 준공됐다.
광주-대구간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전남 담

양분기점에서 경북 동고령나들목간 142.8km 구간을 공사비 2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2008년 11월 착공해 준공됐다.
도는 이번 4차선 확장에 따라 운행거리가 10km 짧아지고 주행시간이 30분 단축돼 연간 85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준공으로 영호남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동서회합과 지역균형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대전-통영고속도로, 전주-광양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와 연계가 쉬워져 영호남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경용 경북지사는 "광주-대구간고속도로 확장개통으로 교통수요 증가 및 사고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증진을 물론 상생발전을 위해 동서간 SOC건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안동 도로 결빙 낙상 대응 출근길 '우왕좌왕'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갑자기 발생한 비상상황 염화칼슘 수용액 만드는 준비과정 시간이 걸렸다



안동지역에서 도로가 결빙돼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관계당국의 대처가 늦어져 출근길 차량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일 오전 5시경 안동시 북후면 장거리의 한 교량에서 영주방면으로 가던 A(57)씨의 승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사고로 파손된 중앙분리대에 반대편 도로에서 달리던 B(38)씨의 승용차가 다시 충돌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와 경찰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계당국에 연락했지만, 수습이 늦어지면서 출근길 차량들이 우회도로로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비하지만, 갑자기 발생한 비상상황에서는 염화칼슘 수용액을 만드는 등 준비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관계당국의 대응이 늦어지자 2시간 30분가량 순찰차 4대를 동원해 결빙구간을 차단하고, 출근길 차량을 우회도로로 유도했다.
안동기상대 관계자는 "겨울철 새벽에 그늘진 곳이나 교량 구간에서 결빙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김용구 기자

사건·사고

대구지검, 송유관 뚫어 기름 28억원어치 도둑질... 5명 기소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현)는 22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친 혐의(특수 절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로 이모(5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망을 본 조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일당은 2012년 경북 경주시 울동면 주유소를 차려놓고 올해 4월부터 7개월간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내 고압호스로 연결한 뒤 68차례에 걸쳐 휘발유와 경유 255만ℓ, 시가 28억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훔친 석유는 새벽시간대 운반책이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담은 뒤 장물처분책이 무자료상 등에게 팔아넘겼다.
이들이 범행을 위해 3-4평 크기로 만든 지하병거에는 고압호스, 유중감별기, 유압계는 물론 화장실과 전기시설까지 갖춰놨다.
일당이 석유를 훔치기 위해 쓴 공사비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팔다남은 석유 22만ℓ와 이씨 소유의 현금 2억원, 외제차량, 탱크로리 차량 등을 압수하고 출근 차량을 사들인 무자료상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지우현 기자

대구서 빌라 불... 2명 연기 흡입

22일 오전 11시20분경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1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빌라 거주자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지우현 기자

포항경찰, 전국무대 30대 원룸털이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22일 전국을 돌며 원룸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경북과 경기, 대전, 충북지역 원룸에 침입해 총 11회에 걸쳐 귀금속 등 시가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연시 평온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소주發 후폭풍, 맥주값도 곧 오를듯...

할당관세 폐지로 맥아 원가 30% ↑
맥아, 맥주 원재료 비용 25% 차이
소줏값 도미노 인상에 이어 맥주 가격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맥주의 주 원료인 맥아, 홉 등의 국제 시세가 매년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할당관세 혜택까지 사라졌다.
맥주 제조사들 역시 지금까지는 소주와 마찬가지로 인상 요인들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왔지만 더 이상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40% 이내의 관세율을 인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매년 소폭의 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1995년 이후 꾸준히 연장돼 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이브리드 소주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맥스컴퍼니, 무학, 금복주, 대선주조 등 대부분의 소주 제조업체가 출고 가격을 올렸다. 현재 롯데주

류와 보해양조만 값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의 소주 업체가 원·부자재 가격을 이유로 값을 올리자 맥주업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재 맥주 제조사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가격 인상 요인은 소주보다 맥주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맥주보리와 맥아에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폐지된 이후 30%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빈병 가격마저 인상될 경우 주류 생산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부분의 인상 요인이 정부 정책에 의한 것 이다보니 주류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주류 가격 인상을 부채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995년부터 매년 할당관세 조정안을 통해 맥주보리와 맥아(맥주의 주 원료), 조주정(소주의 주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재료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최소화해왔다. 제조사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었다.
2011년 할당관세를 연장할 당시에도 정부는 원가부담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류업계 주장을 반영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지난해까지는 주류업체의 주장을 반영해 할당관세 혜택을 줬지만 이를 철폐하면서 주류업체를 입장에서는 원가부담에 세금부담까지 더해졌다.
맥아는 맥주 제조원가의 약 25%를 차지하며 맥주제조사들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맥아를 구입한다.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주류업체들의 가격 인상 요인을 만든 셈이다.
주류업체는 원가 상승 요인과 원부자재, 물류비, 판매관리비 등 비용의 증가로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주 가격 인상에 따른 여론악화로 자칫 '총대'를 뺄 경우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우현 기자

대구

광역시보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5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임병헌 남구청장은 23일 구청 드림피아홀에서 개최되는 '2015 대구 남구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23일 구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북구청 노사 단체협약 조인식'에 참석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23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환경미화원 퇴임식'에 참석한다.

달성군, 자연재난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달성군은 지난 21일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2015년 자연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연재난관리평가는 여름철 태풍, 폭염, 겨울철 제설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재난관리 실행 및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등을 종합해 대구시에서 평가 선정한다.

달성군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노령인구가 많이 살고 농지 및 농가가 많아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과 관심이 높고, 면적은 대구의 48%,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128개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불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군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이 상존하는 다사서재 침수지역 개선, 가칭 급급사지 정비, 하천 제방 정비공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점검·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식부족으로 가입율이 저조했던 풍수해보험에 대해 자연재난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복지차원으로 접근해, 노령층의 방문교육과 저소득층의 홍보로 가입율을 높인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김영식 기자

달성군청소년센터, 3년 연속 나라사랑 프로그램 우수기관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달력속에 숨은 역사찾기' 사업으로 2013년부터 3년 연속 국가보훈처 주관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차 현장평가, 2차 서면평가 후 3차 사례발표를 통하여 달성군청소년센터를 비롯 전국 7개 기관이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달력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체험 활동이며 민주, 호국, 독립의 3가지 테마로 역사 교육, 역사 현장 체험, 나만의 역사 달력 만들기 등 총 9회를 실시, 청소년들과 가족들에게 역사교육을 심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가치관이 바로 선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역사 찾기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운영기관 상을 받게되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기 올바른 가치관형성에 청소년센터를 주축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따뜻한 팔죽 드시고, 무병장수 하세요”

북구청은 22일 바르게살기북구여성회에서 동지를 맞아 독거노인 등 100명을 초청해 팔죽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동지를 맞아 외로운 독거노인

들에게 동짓날 즐겨먹는 팔죽을 대접, 병신년 새해 악귀도 쫓고 무병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순자 여성회장을 비롯한 회원 20

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서순자 여성회장은 “옛날부터 동지에 팔죽을 먹으면 액운과 질병을 예방한다는 속설이 있다”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혼자 해드시기에는 힘이 든 음식이라 팔죽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수성구 “행복의 산타가 사랑을 선물해 드려요”

드림스타트 외국인 영어 강사들 산타로 변신 복지시설 아동 격려



수성구는 지난 17, 18일 수성구 드림스타트 외국인 영어 강사들이 산타로 변신해 수성구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오는 29일과 30일에도 관내 복지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원어민 영어수업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캔디스와 에이프일이 한빛지역아동센터, 성림원 등 6개 시설 아동 140여 명에게 선물을 전해 주기 위해 페이스북을 활용한 'Give A Gift Appeal 2015' 이벤트를 기획했다.

지난 17일 수성구 드림스타트를 시작으로 18일 한빛지역아동센터와 성림원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으며, 오는 29, 30일에는 애활원, SOS센터, 신망애원 등을 찾아 시설 아동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올해로 5번째인 이번 행사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대구에서 받은 도우에 보답하기 위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아동들에게 나눠줄 선물은 이벤트 기획자 캔디스가 대구일원 카페 5곳을 지정해

카페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선물용 빈 가방을 전해주고 선물이 담긴 가방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14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작지만 큰 정성을 보였다.

이 행사는 수성구청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네트워크사업의 하나로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체험 및 지역사회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 10명 정도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한빛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에서 매주1회 영어수업 자원봉사를 하며 평소 원어민 교사를 만나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할로윈 파티와 같은 이벤트도 마련해 시설 아동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지난 8월에는 수성버북시장에서 아이들과 부채 만들기 체험행사를 열어 수익금을 아동들을 위한 행사에 사용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수성구청은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감사사헌문, 활동앨범, 수성구 홍보책자 등을 전달해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수성구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외국인 네트워크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외국인네트워크를 활용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겨울철에 빈번한 동파, 사전에 차단한다”

대구시, 동파 예방 시설 미비 계량기 보호통 정비

대구시는 22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겨울철 발생하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이 미비한 계량기 보호통 및 보온재를 정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급수전 27만 6912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계량기 보호

통과 보온재 파손 등 시설이 미비한 1만1661점에 대해 이뤄졌다.

한편 본부는 동절기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계량기 동파 민원 접수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계량기를 즉시 교체, 시민들의 수도물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계량기 교체는 전면 무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는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는 보

온재로 채우고, 외부 보호통 뚜껑과 속뚜껑은 항상 닫아 두어야 한다”며 “마당에 설치된 부동급수전의 앞 수도꼭지는 항상 열어놓고 뒷 밸브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은 얼거나 동파될 염려가 있으므로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싸 물과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혹한 때에는 수도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기자



달서구 ‘여성·아동이 행복한 달서 만들기 캠페인’

여성단체협의회 등 800여명 참여

달서구는 23일 죽전, 유천네거리에서 달서구청,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 달서구 아동여성보호연대 등 지역 기관·단체, 주민 등 800여명이 참여해 '2015 여성·아동이 행복한 달서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아동, 가정폭력이 이슈

화되고 있는 요즘,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 청소년, 여성폭력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모두가 손에 손잡고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가요!'란 슬로건으로 보라데이 플래시몹 운영 및 여성·아동폭력 예방, 가족·양성평등·일가정양립의 중요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앞서 달서구는 그동안 지난 2월부터 여성·

아동 폭력예방을 위해 여러 캠페인 및 플래시몹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관내 모든 단체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열린다.

이태순 달서구여성단체협의회장은 “올해 초부터 보라데이 플래시몹 및 캠페인을 연중 추진해 오면서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여성과 아동 그리고 가족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뜻 깊은 한해였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우현 기자

북구청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한번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북구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하는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북구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해외 여행객은 늘어나는 반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은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인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청은 이를 위해 23일 대구운전면허시험장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발급절차는 여권 신청자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희망자는 북구청 종합민원실 여권창구에 여권 신청 외 별도로 여권용 사진 1매와 수수료(8500원)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국내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누구나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국제운전면허 관련 제네바 가입국 96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우현 기자

신명나는 우리 고유의 국악 배우리 오세요

제55회 대구시립국악단 동계 국악강습회 개최

대구시는 22일 대구시립국악단에서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동계국악강습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방학기간을 맞아 열리고 있는 국악강습회는 전통 국악기를 가르치고 있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설기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과목당 1만원의 강습료로 시민들의 부담은 줄고, 소규모 클래스 운영으로 강의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과목은 해금, 가야금, 한국무용, 장구,단소 등 5과목으로 가야금과 장구는 강습기간 동안 악기가 제공되며, 해금은 2만원에 악기대여가 가능하다.

강습시간은 해금, 한국무용, 단소는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진행되며, 가야금과 장구는 오전 11시부터 50분간 진행된다. 강의는 2과목까지 중복신청이 할 수 있다.

강사진은 시립국악단 삼일단원들로 2명당 배정되며 기초부터 상세히 지도해줘 국악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습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도 수여된다.

과목당 정원은 15명이며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신청은 전화접수만 가능하다.

문의 및 접수는 대구시립예술단 단체운영팀(053-606-6193/6196)으로 하면 된다.

지우현 기자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남구청은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9일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지하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2015 사랑의 김장나누기 자원봉사'를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는 가톨릭대학교병원의 사랑을 모으는 사람들 봉사단과 드림가족봉사단, 가족체험스쿨봉사단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자원봉사자들은 4500kg 분량의 배추와 무 등을 이용해 김장을 담가 관내 시설 20여곳에 10kg씩 540박스를 전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연말연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사에 기꺼이 참석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6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각덕 포항시장은 23일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리는 '투자협약(MOU)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주재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23일 오후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2015년 기업인 및 유관기관장 초청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3일 오전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실과소 담당 주무관 회의를 주재한다.



임광원 울산시장은 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2015울진 송년음악회'에 참석했다.

포항시,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캠페인 전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포항시가 22일 중앙상가 일대 거리에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포항시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오자성),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오완석),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회장 김영동), 포항청년회의소(회장 박성민)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해 정직, 배려, 준법을 실천하고 거리질서, 교통안전, 음주운전 예방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노래하는 좋은 사람들(회장 권성호)의 공연을 시작으로 기초질서 풍선나누기, 풍물놀이, 결의문 낭독, 악습 타파 퍼포먼스, 거리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권혁동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현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립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울진군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12월21일 까지(27일간) 2015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0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6년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민생관련 조례안 14건, 2016년도 정기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2016년도 울진군 출연 계획안 1건 등 총 20건이 의결됐다.

2016년 본예산에 일반회계 3654억원, 특별회계 2367억원으로 총 6021억원을 의결하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운영비지원 등 14건에 158억1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김형삼 기자



동해안 5개 시·군 '지역행복생활권' 실무회의 가져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주민행복, 동해안 발전 모색

포항시와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동해안 5개 시·군 지역행복생활권 실무협의회가 2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동해안 5개 시·군 주민행복과 동해안 발전을 위해 지난달 24일 개최된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창립총회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날은 포항시 문화예술과장, 국제협력관광과장, 해양항만과장, 수산진흥과장, 건설과장, 정책기획과장 등 8명과 경주시 5명, 영덕군 3

명, 울진군 4명, 울릉군 3명 등 총 24명의 실무부서 과장들이 모여 지난 창립총회에서 논의했던 안건들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분야 실무추진위원회 구성방법 및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특히 대계 불법포획 및 광업권 허가 관련(어항내 모래채취), 포항-삼척간 동해선 철도 조기건설 등에 대해 5개 시·군이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5개 시·군 관광 및 공공시설 공동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당해 시민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월 1일부터 포항유하 크루즈 이용요금을 5개 시·군 주민들에게는



포항시민에게 주어지는 할인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 6000원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한편 동해안 5개 시·군은 이날 논의된 다양

한 안건들을 바탕으로 5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동 기자

경주시, 원가심사 일상감사 투명시정 확보

2010년부터 5년여 간 1994건 132여억원 예산 절감 효과

경주시는 계약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 조정하고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해 2010년7월-2015년 12월까지 5년여 동안 1994건에 132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올렸다.

올 한 해에는 366건에 28억2200만원으로 원가심사 251건에 8억원, 일상감사 115건에 20억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 일자리 창출과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경주시는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제조구매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계약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사업비과다 계상 등을 세밀히 검토해 예산절감은 물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심사로 부실공사 예방과 건전한 재정운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혜열 감사담당관은 지난 4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자발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원가심사제도로 창의적인 심사기법을 지속 발굴해 투명한 시정확보와 예산절감 등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이희진 영덕군수, 저소득층 가정 직접 방문 생필품 전달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21일 연말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문했다.

이날 이 군수는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다자녀(7인)가정, 장수 어르신 가정 등 6세대의 저소득층 가정

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며 직접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손자와 함께 생활하는 김모씨(영덕읍)댁에서는 동행한 직원들에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시하기도 했으며, 7명의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박모, 강구면) 방문에서는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역과 국가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승건 기자

경주 보문관광단지, '한국관광의 별' 장관상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으로 선정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2015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경북도관광공사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5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에 보문관광단지가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문관광단지가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부문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은 보문호수를 일주하는 보문호반길에 마련된 각종 장애우 편의시설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크게 어필했다는 평가다.

보문관광단지를 개발·운영 중인 경북도관광공사는 보문호반길을 장애우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호반관광 등 7개소에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촉지형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호반길 주변 3개 주차장에 장애우 주차시설을 완비했다.

또 호반길 주변 공중화장실 7개소에 장애우를 위한 점자 표시, 손잡이 설치, 내부 칸막이 교체, 자동처리시설을 설치했다.

휠체어 사용자들이 호반길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낮추기, 턱 없애기, 블라드 설치, 안전펜스 설치, 휴게벤치 14개 설치, 수상공연장내 전용 관람석도 설치 완료했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우수한 국내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관광매력을 3개, 관광환대 3개, 특별 5개 부문으로 총 11개 별을 선정 지난 2010년부터 매해 새로운 별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윤용찬 기자

영덕군, 10년 연속 로하스 인증 금자탑 세워

매년 친환경 지향의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 구현

영덕군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인증 심의에 통과하며 10년 연속 로하스 인증이란 금자탑을 세웠다.

로하스는 사회, 경제, 환경적 토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뜻하며, 매년 한국표준협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이다. 영덕군은 지난 2006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이래 친환경 지향의 지속가능한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해오고 있다. 이번 10년 연속 인증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고장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승건 기자



사랑해요 영덕

전국 시군구 브랜드 인지도, 매력도 1위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관광도시 **盈德**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elcome to Yeongdeok

아름다운 자연과 장엄한 문화유산,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삶이라는 고장! 관광객 전만시대로 도약하는 로하스 영덕에서 고품격과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영덕군은 '살맛나는 고장, 관광력 일흔만 시대 도약'을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 및 해양거점 도시로서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덕군청 트위터 <http://twitter.com/love4yd> 영덕군청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4yd
영덕군 문화관광과 <http://tour.yd.go.kr> 영덕마켓 <http://ydmarket.co.kr>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7

영천시, 경북 한마음 태권도대회 성황리 열려

경북 장애인태권도협회(회장 이성우)가 주관한 제4회 경북 한마음 태권도대회가 지난 20일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무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영천에서 개최된 이번 태권도 대회에는 유치부, 초등, 중, 고등, 대학, 일반, 장애인부로 나눠져 품새 및 태권체조부문에 경기가 이루어졌으며 선수 및 학부모 등 900여명이 참가했다.

여명이 참가했다.

영천시는 지난 7월 5000여명이 참가한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독도수호 태권도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11월에는 1000여명이 참석한 제2회 경북연합회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해 태권도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일만 기자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김영석 영천시장은 23일 오후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창조적두뇌만들기 12월 직원 교육에 참석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23일 오후 경산 남산면 상대리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도람살리기사업 준공식'에 참석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평가 경산시 최우수기관 선정

경산시는 지난 17일 경주시 테케이호텔에서 경북도 주관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정책세미나 행사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정부합동평가 결과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그 동안 경산시는 탄소발생량 감축을 위해 2015년 한해동안 주관한 각종 행사, 대회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산화탄소)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전기사용량 자체점검 목표를 설정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운동을 실천해 왔다.

탄소중립사업은 온실가스를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국민참여 실천운동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우선 산정하고 스스로 감축목표를 정한 후 다양한 상쇄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고자 추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영조 시장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모두가 동참해 이루어 낸 성과로 앞으로도 시민, 기업체등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영운 기자

대가야, 섬진강으로 진출하다

섬진강·남해안의 대가야 유물들 한자리에 모으다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제13회 기획특별전 '대가야, 섬진강(鎭津江)으로 진출하다'가 22일부터 대가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했다.

고령은 1600여 년 전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끌었던 대가야의 도읍으로, 지산동고분군·주산성·고아동벽화고분 등 대가야시대의 많은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가야를 주도했던 국가를 대체로 서기 400년 이전은 김해의 금관가야, 이후는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였다. 대가야는 400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합천·거창·함양·산청 등 영남 서부지역은 물론, 남원·장수·진안·임실·구례·순천 등 호남 동부지역까지 진출했다.

전성기의 대가야는 고령을 중심으로 영남과 호남지역을 아우르는 영역국가의 모습을 갖췄다. 때문에 학자에 따라 대가야가 고대국가로 발전한 것으로 보아, 4국시대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대가야는 고령에서 합천→거창→함양→남원을 지나, 곡성·구례→섬진강→하동→

남해안을 거쳐 중국이나 일본으로 통하는 섬진강 루트를 개척했다. 또 섬진강 서쪽의 광양·순천·여수 등을 확보해 남해안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했다.

대가야는 남해안을 통해 삼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과 활발한 교역활동을 펼친 해상교역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고령을 비롯해 남원·곡성·구례·하동·광양·순천·여수 등 섬진강 중·하류와 남해안 일대에서 출토되고 있는 대가야의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섬진강과 남해안의 바닷길을 이용해 바다를 넘나들었던 대가야의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가 갖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국립박물관, 구례문화원, 대가야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등 총 9개 기관에서 총140여점의 토기가 출품됐다.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먼저 제1부에서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해 남원의 월산리·두락리·건지리고분군, 곡성 방송리고분군, 구례 용두리고분군, 광양 비평리고분군, 여수 고락산성 등 섬진강 중하류의 유적에서 출토된 대가야 유물을 소개했다. 제2부는 남해안의 전략적 요충지인 순천의 운평리고분군과 왕지동고분군의 유물을 전시했다. 제3부는 섬진강 하류 대가야의 대외 교역 항이었던 하동의 흥룡리 고분군 출토 토기를 전시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전시는 남원·순천·하동 등 섬진강과 남해안의 대가야 유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삼국과 함께 고대문화를 한 축을 담당했던 대가야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호남지역의 대가야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 조사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캐롤과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난 19일부터 1주일간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뮤직&매직'과 특별프로그램 '캐롤과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 '책도 읽고 간식도 먹고!'로 구성된다.

지난 19일 음악회는 약 300여명의 어린이와 부모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콘서트 '뮤직 & 매직'을 했다. 오카리나, 플루트, 바이올린 연주와, 성악, 매직쇼로 구성됐으며 케를 곡연주

와 어린이들을 위한 크기별 오카리나 소개와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거워했다.

특히 후반부에 매직쇼를 실시,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벤트로 어린이들이 무대에 나와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캐롤과 함께하는 즐거운 도서관'은 21일~24일까지 도서관에서 캐롤을 들려줘 어린이들이 더욱 더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책도 읽고 간식도 먹고!' 프로그램은 동기간동안 책 3권 이상을 빌려가서 읽는 어린이들에게 초콜릿 등 달콤하고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용규 기자

행복한 동행, 우리는 가족입니다

칠곡군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장애우 가족 송년행사

칠곡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18일 정신장애우 회원 및 가족들 50여명을 초대해 '행복한 동행, 우리는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1부는 개회식과 함께 한 해 동안 활동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 관람 및 서예작품을 감상하고, 2부는 율령산 마술사의 마술공연과 이창현 강사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여는 화합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정신장애우와 가족들은 그동안 서로의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가족 간 유대감 및 친밀감 형성과 함께 가족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칠곡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6년에도 회원들과 가족 뿐 아니라, 칠곡군민 모두의 정신건강은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센터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정신장애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편견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동지팔죽 무료나눔행사'

청도 적천사, 청도역앞 광장서

청도군 적천사(주지 정광스님)에서는 지난 21일 청도역앞 광장에서 '2015 동지팔죽 무료 나눔행사'를 열어 팔죽 500여인분을 군민들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을 청도군수를 비롯한 송준섭 청도경찰서장, 정성구 도의원, 황통주 청도군자원봉사센터장 등이 동참했으며, 육군 7516부대 제5대대 장병들도 함께 자원봉



사활동에 나서 올 한해 마무리와 새해 희망을 받았다. 강용규 기자

호국평화의도시 칠곡

새로운 철곡 100년

이르신이 편안한 칠곡

사회적 약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칠곡

일자리가 넘치는 칠곡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칠곡

신뢰받는 칠곡 2015년 준공예정인 호국평화공원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8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남유진 구미시장은 23일 오후 삼성·지역대학·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컨설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박보성 김천시장은 23일 오후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2015 김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23일 오후 의남면 상주꽃감공원에서 열리는 '제5회 상주 의남고을 꽃감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3일 오후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3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삼국유사아카데미 '소설가 김홍신' 초청강연'에 참석한다.

2015 의성군새마을지도자대회

의성군새마을회(회장 장상은)는 지난 2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한 해 동안의 새마을운동 성과를 돌아보고 제2새마을운동 실천을 다짐하는 '2015 의성군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김재원 국회의원, 의성군의회 의원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새마을지도자 900여명이 참석, 활력 넘치는 의성 만들기에 앞장서고 나눔·봉사·배려의 지역발전 선도를 결의를 다졌다.

또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대군 새마을협의회장 등 46명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경북도지사 및 군수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장상은 회장은 "제2새마을운동의 나눔·봉사·배려의 실천행목 아래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더욱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드는데 함께 앞장서자"고 했다.

한편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더욱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구미시 2015년 건강도시사업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구미시 탄소제로 교육관에서 사업장(기관) 대표 및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건강도시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관내 제조업 사업장 중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제고를 위해 Navi(나비) 인증기준을 충족한 4개회사 6개 사업장을 2015년 건강한 일터(Navi) 사업장으로 인증

하고, 건강한 일터 2개 사업장과 건강도시 생활터 공모사업 1개 단체를 우수 사업장(기관)으로 선정, 시상했다.

박의식 구미부시장은 건강도시사업 담당자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구미시 만들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과 근로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

해 우리 구미시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많은 구미시의 특성을 살려 건강한 일터 인증제와 주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인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사업이 선정돼 201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은진 기자

상주시 농·특산물-중국, 대만시장 공략에 박차

대만에서는 상주꽃감의 이니셜오더(첫 주문)도 받아

상주시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상주시 농특산물 중국 상해 판촉전'에 참가해 농특산물의 대만시장과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현지 바이어 및 수출관련 기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중국과 대만 지역의 한류열풍과 농산물의 안전성 등으로 국내 제품의 선호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조미김, 꽃감, 배 등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상주시가 지난 8월 전국 공모를 통해 채용한 수출전문가(6급 상당)를 중심으로 많은 준비를 했다.

대만에서는 상주꽃감, 배, 포도즙 등 농특산물을 RT마트, Welcome 슈퍼체인, Jason 백화점의 실무진 및 Oversea Trading 등 수입사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병행했다.

특히 자매도시인 기흥시를 비롯한 카오슝 방문과 타이베이 시장 상권조사를 통해 이번 판촉전의 최대 관심이었던 꽃감수출은, 수출업체와 수입업과의 면담이 잘 이뤄져 20피터 1콘테이너(5000만원 상당)의 이니셜 오더(첫 주문)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월마트 10개점, 태국계 LOTUS 10개점에서 한미레시피(대표 정석동) 조미김의 대대적인 판촉행사와 함께 aT상해지사, 수협중앙회 상해지사를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미레시피 조미김은 올해 140여톤, 30억 원 상당의 물량이 중국, 미국 등으로 수출됐으며, 이번 행사와 관련, 다음달까지 약 5억원 정도의 사전주문이 있었다. 또한, 내년에는 월마트, 화련만가, 까르푸, 대운발 등의 마트에 입점해 80여원의 수출을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번 상주농특산물 판



촉전은 한·중FTA 발효로 대만을 포함한 세계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채용한 수출전문가를 단장으로 실적을 올리는 해외 판촉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며

서 "대만과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중화권 전역에 상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해 농가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상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재영 기자

문경새재 '국민관광스타'로 빛나다

2015 한국관광의 별 생태관광자원 부문 선정



문경새재가 지난 2013년 한국관광100선 1위에 이어 2015한국관광의 별 생태관광자원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국내관광 프리미엄 브랜드로 매년 최종 선정된 11개 부문에 대해 시상한다.

올해 '한국관광의 별'선정절차는 예년과 확 달라졌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온라인 투표, 오프라인 조사, 내외국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3차에 걸쳐 최종 선정하게 되는 까다로운 절차와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관광100선'과 연계, 모바일스탬프 투어 이벤트, 온라인 추천 이벤트, 방문자 만족

도 등 한국관광100선 홍보 이벤트 결과를 반영하고 별도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인지도, 만족도 증가율을 반영, 1차로 10배수 후보지를 선정했다. 2차로 전문가 서면평가를 거쳐 각 부문별 최종 후보 3개소를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현장평가 및 외국인 모니터링을 실시, 최종 '한국관광의 별' 생태관광부문에 문경새재가 선정됐다.

지난 2013년 한국관광100선 온라인투표에서 1위를 달성했던 문경새재는 전국에서 가장 잘 보존돼 있는 옛길을 가지고 있으며 유서 깊은 유적들을 옛길 곳곳에 보유하고 있고 근대 아리랑의 시조인 문경아리랑이 불려오진 곳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최우수 축제인 '문경전통찾사발축제'가 매년 문경새재오픈세트장에서 개최돼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모여드는 점,장사의 신·객주(KBS), 육룡이 나르샤(SBS) 등 다수의 사극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점 등이 최종 선정 배경이 됐다.

2015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은 22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며 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에 이어 한국관광의 별 수상으로 문경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관광 도시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아리랑, 석탄박물관, 철로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역사와 자연, 레저 환경이 잘 비쳐진 문경(聞慶)을 방문해 좋은 소식 듣고 가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오재영 기자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

2018년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 목표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2008년 12월 22일에 설립한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이사장 박보성)이 지난 18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보성 김천시장과 김병철 시의회 의장, 장태덕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시의원, 기관단체장, 후원금 기탁자, 장학금 연주를 시작으로, 재단 홍보 영상물 상영, 이영두 사무국장의 경과보고를 통해 그동안 인재양성재단의 설립과 운영, 명예의 전당 설립 취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2009년 재단1호 장학금인 함지수 학생이 보내온 감사문 낭독과 2015년 특기장학생인 나진이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현재 명예의 전당에는 2008년 12월부터 현재

제까지 약7년 동안 총2375명의 모든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겼으며, 큰인재(1억원 이상), 숲(5000만원 이상), 나무(1000만원 이상), 열매(500만원 이상), 새싹(100만원 이상), 씨앗(50만원 이상), 배려(50만원 미만)로 구분을 지었고, 기탁금액 변동 시 수정이 가능하도록 탈 부착 식으로 제작됐다.

박보성 재단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갖게 된 것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기탁하신 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기리고, 지역사회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작은 배려의 씨앗들이 새싹이 되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돼 큰 인재를 키워 가듯이, 명예의 전당에 새겨진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이름이 우리 김천의 역사를 반듯하게 키워가는 주축이다" 그리고 "이런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2018년까지 200억원 기금 조성에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당초 2018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조성목표로 시작했으나, 그동안 시민, 출향인, 각 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5년 앞당겨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최규목 기자



www.gbmg.go.kr

자연의 깊은 울림, 마음의 깊은 감동

대한민국 힐링의 시작

문경

관광안내센터 문경새재도보관광센터 T.054-550-6414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문경 새재

관광지 1위 선정!

눈이 먼지 걷단하는 문경달빛

기후가 좋아서 걷기여행

유유한 분위기를 담은 전통문화

숨겨진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지역축제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9

영양군, 2015년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영양군은 21일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고인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영양군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창재 기자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장욱헌 영주시장은 23일 풍기문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영주사와 혁신지원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23일 오전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공모사업추진 보고회'에 참석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23일 입암면 양향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군수실-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다.

봉화군-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 시행 업무협약

봉화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오후 3시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난 10월말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마을연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된 190호와 관련된 것으로 봉화읍에는 젊은층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90호를 춘양면에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지방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 하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봉화군과 LH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사업 건립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자리에 함께함에 감사드리고, 봉화군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LH공사 또한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기 기자



청송영양축협, 한우프라자 오픈... 지역상권 '붕괴'

인근 식육점·음식점 매출 절반

거센 비난속 청송군청까지 홍보 자청

청송영양축협이 최근 부동면 하의리에 직영으로 한우전문식당과 축산물 판매장, 하나로마트 카페 등을 갖춘 한우프라자를 개장하면서 특히 인근지역인 국립공원 주왕산 식당가와 청송읍·부남면 소재지 식육점, 식당들을 비롯해 청송군내 식당들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며 울상이다.

청송군과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청송군 부동면 주왕산로 440호 일원에 건평 990㎡내 200석 규모의 한우 전문식당인 C

식당을 열었다.

축협 측은 현재 직영농장에서 기른 한우 1등급 이상만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주왕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주소비자로 해 청송지역 식당의 손님이 빠져나갈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라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축협은 이를 위해 거액의 신축비용과 인테리어비용을 투자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내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한우프라자 주변 부동면, 부남면, 청송읍 등 20여 곳의 식당과 식육점이 자리 잡고 있고 인근에도 20-30곳의 관련 업종이 영업 중이다.

축협은 조합원들의 한우 판로개척과 수익창출을 위해 C식당을 직영한다지만 수개월 전부터 청송지역 한 축산농가가 C식당 인근에서 A 한우전문판매장과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어 축협이 판로개척 등을 지도 또는 보조하는 역할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또 축협에서 직영하는 식당은 경북도내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운영하지 않고 있어 다수의 상인들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일과 다를 게 없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이 축협 식당이 계속 운영되면 지역의 영세한 식당과 식육점들 중에 폐업하는 가게도 나올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거센 비난 속에 청송군청까지 나서 C식당의 홍보를 자청하자 일부 공직자들도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는 입장이자.

주민 이모(44)씨는 "축협에서 직영한다는 말을 듣고 가 봤지만 여는 음식점과 다를 바 없었다"며 "다만 신축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축협관계자는 "한우프라자는 식당 영업보다 한우판매장 영업이 주력사업이다"며 지역상권이 위축된다는 말에 대해 "향후 한우프라자가 본 궤도에 올라가면 지역의 식당이나 식육점에도 축협 한우를 공급하는 한편 식당의 레시피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난 여론이 들끓자 청송영양축협은 23일 오후 12시에 청송지역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창재 기자



영주 풍기인삼, 세계를 향하다

미국, 중국 등 10여개국
이어 베트남에 첫 진출

영주시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풍기인삼이 베트남에 진출했다.

지난 20일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 호치민에

풍기인삼농협(조합장 권현준) 3개 지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홍삼농축액, 홍삼액, 홍삼분말 등 12개 제품이며, 베트남 기후에 맞는 맞춤형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도적인 베트남 시장 개척을 위해 2016년 1월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베트남 5대 도시 중 하나인 하이퐁 지역에 2개

지점을 추가로 개설 할 예정이며, 앞으로 꾸준한 지점 개설을 통해 베트남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풍기인삼농협의 홍삼제품은 한국식품으로는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 표준축량청의 '할랄 인증'을 받음으로써 중동 수출길에 본격 나설 예정이며, 올해 미국, 중국 등 10여 개국에 홍삼제품 360만 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장욱헌 영주시장은 "이미 뛰어난 효능이 입증된 풍기인삼의 꾸준한 세계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다양한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 201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안동시 조사대상 26만여 필지

안동시는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토지특성을 12월 22일부터 조사한다.

안동시는 자가조사만을 편성해 표준지를 제외한 26만여 필지에 대해 토지구제 사항과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 검토하고 토지이용상

황, 용도지역 및 지구, 지형 및 지세, 도로조건 등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분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의 적정한 지가산정을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공정한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규 기자

영주시, 특별교부세 11억원 추가확보 '행복안전도시' 구현

영주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상석교 재가설 사업' 추진에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추가 확보, '시민이 안전한' 도시, 영주 건설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영주시 부석면 상석리에 위치한 상석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교량으로, 상석리 주민들은 이 교량 외에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없어 차량통행 및 물류수송, 영농에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조속한 재가설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재난위험교량 개체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는 추가확보예산 11억원 포함, 2015년 한 해 동안 총 3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2014년 확보한 특별교부세 25억원 보다 10억원이나 증액됐다.

지난 5월, '시가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6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시작으로 '하망동 급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4억원, '성곡-안정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원을 차례로 확보하면서 지역현안수요에만 총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소하천정비사업과 재난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같은 재난안전수요에도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을 확보, '안전한 도시' 영주 건설에도 소홀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요에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욱헌 영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항상 시민들과 소통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민이 행복한 힐링도시 행복영주 건설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청신호

경남북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북 김천-경남 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가 경상남

북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필요한 2016년도 국비에 산 3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는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KTX 김천구미역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170.9km, 5조 7864억원, 단선전철)는 내년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6년 30억원을 투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당초 2016년 정부안에는 '철도기본계획수립' 추진 예산으로 120억원이 편성돼 있었다.

이 경우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돼 '통과'로 결정되더라도 타 사업들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늦게 나오면 예산부족으로 2016년에 착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제 그동안 경제성에만 연연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2016년도에 차질 없이 사업에 착수해야 함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해 온 경북도의 노력이 주효하느냐가 관건이다.

지하경제 팽창, 검은 돈 끌어낼 지혜를

지하경제 팽창, 검은 돈 끌어낼 지혜를.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45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 GDP 규모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 42년 동안 500배 이상 커졌다.

정부는 규제를 피해서 행해지는 마약 거래와 사채, 성매매, 밀수 등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해 446조51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검은 돈을 양지로 끌어 낼 공리가 시급해진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30.1%를 기록했다.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가 벌어진 1990년대가 GDP 대비 지하경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지하경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26.4%로 폭 떨어졌던 지하경제 비율은 2010년대 31.1%로 치솟았다.

강한 신문 광역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익을... 생각한다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려면



탁승호

(사선진사회발전기연대이사 운영위원)

이번 겨울엔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예년보다 뜸한 모양이다. 연말에 일부러 백화점을 찾아가 보았다.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쇼핑객들로 붐비고 넘치는데 백화점 정문 앞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썰렁하고 초라해 보였다.

좁고 배고픈 불우이웃들은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손길이 절실할 텐데 온정의 손길이 얼어붙고 있어 '이러다가 기부문화 싸이 체 자라기도 전에 말라죽는 게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자선구호재단(CAF)이 세계 15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0년 기부지수에서 81위를 기록할 만큼 기부문화가 부실하다. 동 기부지수는 기부금 액수가 아닌 기부활동 즉 '돈을 기부한 적이 있나',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나', '낯선 이를 도와준 적이 있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기부비용은 경제규모(세계 12위), 웰빙지수(세계 60위)를 감안할 때 미국 및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기부문화단체인 아름다운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기부액은 18만2000원(2009년)으로 미국의 1인당 기부액수 113만원(2006년), 캐나다의 35만원(2004년)과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차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편이며, 기부자의 24.2%가 정기기부자로 나타나

고 있어 정기기부자가 70%에 달하는 미국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실태는 개인보다는 기업위주의 기부와 기부금 영수증 받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며, 개인의 경우 순수한 자선기부보다는 경조사비와 종교적 헌금의 비중이 훨씬 높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료(2009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도는 기업(69%), 개인(23%), 사회종교단체(11%), 공공기관(7%)의 순으로 돼있어 미국의 기부자유형인 개인(83%), 재단(13%), 기업(4%)과 대비됨을 알 수 있다.

기부문화풍도가 취약한 우리사회에서 그나마 기업기부가 많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는 개인기부가 적는데 따른 구성비의 상대적 증가현상이기도 하다. 개인기부자의 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평범한 일반 서민들이고 재벌총수나 사회지도층 등 저명인사, 국회의원 등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기부단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뜻이라는 것이 우리사회 기부문화의 실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OECD 30개 회원국 중 사회지도층의 기부활동 실천여부를 평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를 차지했다고 하지 않던가.

선진국 사회의 기본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지도층이 기부활동, 봉사활동, 병역의 무 등 도덕적 의무를 실천수범함으로써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발전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면 사회지도층과 저명인사들이 앞장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기부행위와 봉사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꼭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필자가 살아 본 영국의 경우 유족들이 신문에 부고(訃告, Obituary)할 때 보조금은 자선단체(고아원 및 양육원)나 교회에 기부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어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조사 기부액이 무려 10조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부유층들부터 솔선해서 그들이 받을 결혼축의금이나 장례조위를 기부단체나 자선단체에 아낌없이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 전반으로 기부를 통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갈등이 치유되고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염원하는 공정사회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으로 확실한다.

윤신근의 애완동물이야기



윤신근

수의사

흥역은 개, 너구리, 스컹크, 여우, 늑대 등 야생동물에게서도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사람에게서는 전염되지 않으며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게 잘 발생한다.

특히 어린 개나 늙은 개에게 많이 발생한다. 누런 콧물과 눈곱, 기침, 식욕 부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39.5-41도의 높은 열이 난다. 증세가 악화돼 신경 증상이 보이

흥역, 사람에게 옮지는 않지만... <115>

면 안면부, 두부, 사지 및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며 한쪽으로 계속 회전하는 등 치료가 어렵게 된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액을 공급하고 2차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 광범위 항생제 등을 투여해 주며 아울러 면역 촉진제 등을 주사해 주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치료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간호를 잘 해주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보충식으로 는 계란이나 고단백 식품(뉴트리클, 동물 의사 처방식 p/d, a/d 사료) 등이 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한 상태를 말하며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에 나타난다.

어린 개에게 나타나는 백내장의 경우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지만 성견의 경우엔 영증

성, 당뇨병성, 외상성, 독성, 망막 질병, 유전성, 선천성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정확한 치료를 해야 한다.

원인과 증상에 따라 백내장 치료제를 먹이면서 안약을 투여하거나 수정체의 외과적 제거술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녹내장은 눈의 내압이 상승, 개의 평상시 정상 안압(15-30mmHg)보다 비정상적으로 항진된 상태를 말한다.

눈의 통증, 불쾌감, 결막의 충혈, 각막 혼탁, 결막사출, 동공의 빛 반사 소실, 동공 확장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시력감퇴 또는 소실과 함께 동공은 녹색을 띠게 된다.

동물병원을 찾아 안압 측정을 해 본 후 녹내장 안약을 점적하면서 레이저 경공막 모양체광고법, 배출로이식술 등 외과적 수술을 고려해 본다.

KEPCO advertisement for Smart Energy Creator, featuring a family and text: '미래를 향한 희망과 감동의 에너지 한국전력의 손 끝에서 시작됩니다' and '최초와 융합의 에너지로 새로운 미래기치를 창출하는 Smart Energy Creator, KEPCO'.



할매 할아버지
로
사랑해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 모두 할매! 할배! 만나러 가요~~

경상북도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손녀 얼굴 잠시도 잊고 지낸 적 없습니다
아들, 딸 데리고 마지막 토요일 부모님 뵈러 가요~~
할매·할배와 손자 손녀간의 사랑이 강같이 흐릅니다